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

백순기¹, 김도진^{2*}

¹중원대학교 의료뷰티케어학과 교수 ²부천대학교 재활스포츠과 교수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hild Development

Soon-Gi Baek¹, Do-Jin Kim^{2*}

¹Professor, Dept. of Medical Beauty Care, Jungwo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Rehabilitation Sports, Bu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아동발달센터 및 아동관련 복지기관에 방문한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지는 총 230부를 준비하여 검사하였으나 검사과정에서 무응답 등의 누락 및 자료의 일관성 등의 문제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검사지 47부를 제외한 총 18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조행동에 있어 성취압력, 과잉기대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소근육 운동에서는 감독, 과잉기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 언어, 언어 이해에서는 성취압력, 과잉기대가 주요 변수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발달에 있어 성취압력, 감독, 과잉기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융합, 양육태도, 아동발달, 과잉기대, 성취압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hild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parents and children who visited child development centers and child-related welfare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tal 230 pieces of survey papers were prepared, and 183 of them - except for 47 copies which were judged to be unreliable were used for the test analysi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version 18.0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order to analyze the parenting attitude and developmental relationship of the children, th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Parents' parenting attitude - especially pressure and excessive expectation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self-ridicule behaviors of children, and supervision and excessive expectation were found in small muscle exercise. Achievement pressure and excessive expectation were also the main variables in expression language and language understanding. Achievement pressure, director and excessive expectation were found to have effects o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Key Words : Convergence, Parenting attitude, Child development, Excess expectation, Achievement pressure

*Corresponding Author : Do-Jin Kim(taehab@hanmail.net)

Received August 29,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October 8,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태어난 즉시 시작되며, 이러한 책임은 어린이의 사회화 과정이 본질적으로 양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 자녀는 이러한 메시지의 수용, 이해력 및 내면화를 통해 부모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전달하게 된다[1]. 사회화란 사회와 가족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경험, 태도 및 행동의 획득 정도를 의미하며[2] 부모는 항상 자녀의 삶의 중심에 있으며 부모가 첫 번째 역할 모델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기본 기술을 배우면서 건강한 성인이 된다[3].

자녀 양육 모험에서 부모는 몇 가지의 양육 태도와 스타일로 나타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형성된다[4].

이와 관련해 부모, 주요 양육자 및 가족은 아동의 생존 및 발달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발달 및 학습의 모든 영역에서 어린 아이들이 겪는 빠른 발전은 부모의 실천, 태도, 지식 및 자원을 통해 육성되고 지원된다. 부모의 양육에 관한 다 분야 및 문헌은 부모가 아동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 준다[5].

또한, 아동 발달에 대한 부모 양육 지식의 중요성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주요 주제이다. 미국심리학회와 아동 및 청소년과의 증거 기반 실무위원회[1], 질병관리본부[2] 및 세계 보건기구[3]가 발행한 증거 기반 권고 사항은 육아 지식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해 부모는 유아 및 아동 발달 이정표, 규범 및 이러한 이정표의 아동 성취를 촉진시키는 양육 관행의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4,5].

기본적인 사회적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또래나 성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6]. 다른 발달 영역(예: 인지, 신체적, 감정적, 언어적)과 얽혀 있는 사회적 능력에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또는 경제적 배경(의학 및 국가 연구 협회)과 같은 다른 영역과 잘 어울리고 존중하는 아이들의 능력도 포함될 수 있다[7].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에는 공감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협동, 공유, 그리고 전망과 같은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들이 포함되는데, 이 행동들은 모두 학교에서나 비학문 환경에서 아이들의 성공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부모와 주요 양육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다.[8]. 이러한 기술들은 성인의 폭넓은 맥락(예: 학교, 직장, 가정생활)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 성공과도 관련이 있다[9,10].

아동과 관련한 주요 환경인 부모와 아동의 관계는 아동 발달이 성장하거나 지연 될 수 있는 주요 환경이며, 정상적인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 부모는 아동에 대한 학대 감정을 덜 느끼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아동의 행동 및 정서적 문제의 발달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아동이 받는 양육의 질과 함께 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될 것이다.

Semrud-Clikeman[11]에 의해 수행 된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양질의 육아를 경험 한 아동은 더 높은 학업 능력, 더 나은 사회적 기술, 교사 및 동료와의 관계 개선에 더 나은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양육지식과 자녀의 발달에 대한 가치와 목표의 산물이며, 문화적, 사회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험과 전반적인 가치와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12]. 따라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권위적인 육아 태도는 부모에 대한 저항과 같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체적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외부화 행동을 유발하는 부모와 아동 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13].

Elias[14]에 의하면 부모의 거부와 태도 통제는 우울증과 같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 행동과 잘못된 행동이나 침략과 같은 외부화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부모의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아동에 대한 언어적 학대와 비판이 수반되는 양육 태도는 아동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양육 태도를 통제하는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적대감과 불합리한 양육 태도는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표현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방해 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외부화 문제 행동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발달과 관련된 주요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함께 아동발달과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아동발달센터 및 아동관련 복지기관에 방문한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발달 관계 검사지를 총 230부를 준비, 검사하였으나 검사과정에서 무응답 등의 누락 및 응답과정에서 자료의 일관성 등의 문제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검사지 47부를 제외한 총 18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은 검사에 응답한 부모의 성별,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s)	ratio(%)
parents	father	14	7.7
	mother	169	92.3
gender of child	man	102	55.7
	female	181	44.3
age of child (month)	24months or less	22	12
	25-36months	52	28.4
	37-48months	52	28.4
	49-60months	31	16.9
	more than 61months	26	14.2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검사는 아동발달검사는 Ireton[16]의 Child Development Inventory(CD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된 K-CDI로 만 15개월에서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도구 개발자는 적정한 연령보다 높아도 검사가 가능하며, 장애가 있는 아동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먼저 부모가 현재 아동의 발달적 기능 수준을 사정하고 발달상에 문제가 의심되는 아동은 추가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각 8개 하위척도로 27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표현 언어, 언어이해, 글자, 숫자, 전체 발달영역과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문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법은 각 발달척도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 표시한다. 진단결과의 해석은 연령경계선에 따라 3가지 정상발달범위, 경계선 발달범위, 지연발달범위로 규정되며, 연령선부터 25%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에 점수가 위치하면 ‘정상발달 범위’, 정상발달 범주에 속하는 연령 이하 25% 발달범위로부터 30% 발달범위 면적분분의 발달점수는 ‘경계 발달범위’로 나타내며, 연령선 30%이하에 발달점수가 표시되면 ‘지연발달 범위’를 나타낸다[17].

부모의 양육태도검사는 Lim[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아동과의 상호작용 경험 및 생활 경험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다. 자녀에게 애정과 지지표현을 하는 정도(지지표현),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이나 의사결정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정도(합리적 설명), 자녀의 성취를 바라는 정도(성취압력), 자녀의 행동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정도(간섭), 자녀의 잘못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는 정도(처벌), 자녀의 활동이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도(감독), 자녀의 능력에 대한 불만족이나 걱정하는 정도(과잉기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훈육 방침이나 태도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도(비일관성)의 8가지 요인 총 4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8.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검사대상자 특성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발달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 입력 방법은 엔터 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유의성 평가 기준은 $\alpha=.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3. 결과

3.1 양육태도와 아동발달관계의 회귀분석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의하면 회귀분석결과 과잉기대는 $B=.343, p=.000$ 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명력은 20.3%로 나타났다.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ity

model	u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		
constant	1.489	.296		5.023	.000
Supportive expression	-.100	.069	-.124	-1.435	.153
reasonable explanation	-.076	.067	-.100	-1.134	.258
Achievement pressure	-.097	.067	-.110	-1.454	.148
Interference	-.032	.060	-.043	-.540	.590
punishment	-.022	.068	-.027	-.320	.749
director	-.082	.063	-.093	-1.303	.194
Excess expectation	.343	.068	.401	5.052	.000
Inconsistency	-.016	.082	-.015	-.196	.845

a. dependent: sociality, R-square=.203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자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와 같다. Table 3에 의하면 회귀분석 결과 성취압력은 $B = -.133$, $p = .019$ 을 나타냈으며, 과잉기대는 $B = .203$, $p = .001$ 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명력은 11.1%로 나타났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elf-help behavior

model	u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		
constant	.947	.250		3.792	.000
Supportive expression	-.062	.058	-.097	-1.068	.287
reasonable explanation	.033	.057	.055	.592	.554
Achievement pressure	-.133	.056	-.189	-2.358	.019
Interference	.011	.050	.019	.218	.827
punishment	-.055	.057	-.086	-.956	.340
director	-.038	.053	-.054	-.717	.474
Excess expectation	.203	.057	.297	3.544	.001
Inconsistency	.117	.069	.141	1.693	.092

a. dependent: self-help behavior, R-square=.111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대근육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회귀분석결과 대근육 운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5%로 나타났다.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major muscle movement

model	u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		
constant	.913	.174		5.240	.000
Supportive expression	.009	.041	.021	.222	.825
reasonable explanation	-.036	.039	-.089	-.925	.356
Achievement pressure	.021	.039	.045	.539	.590
Interference	.035	.035	.087	.997	.320
punishment	-.045	.040	-.105	-1.131	.260
director	.017	.037	.036	.462	.644
Excess expectation	.076	.040	.164	1.896	.060
Inconsistency	.009	.048	.016	.185	.853

a. dependent: major muscle movement, R-square=.055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소근육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회귀분석결과 감독은 $B = -.077$, $p = .036$, 과잉기대는 $B = .126$,

$p = .002$ 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0.5%를 나타냈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mall muscle movement

model	u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		
constant	1.088	.172		6.316	.000
Supportive expression	-.013	.040	-.029	-.313	.755
reasonable explanation	.010	.039	.025	.267	.790
Achievement pressure	-.011	.039	-.022	-.278	.781
Interference	-.057	.035	-.140	-1.639	.103
punishment	-.014	.039	-.032	-.348	.728
director	-.077	.037	-.159	-2.113	.036
Excess expectation	.126	.039	.268	3.182	.002
Inconsistency	.044	.048	.077	.923	.357

a. dependent: small muscle movement, R-square=.105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표현 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와 같다. Table 6에 의하면 회귀분석결과 성취압력에 있어 $B = -.175$, $p = .001$, 과잉기대에 있어 $B = .206$, $p = .000$ 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expression language

model	u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		
constant	1.333	.232		5.751	.000
Supportive expression	-.042	.054	-.071	-.780	.436
reasonable explanation	-.001	.052	-.002	-.025	.980
Achievement pressure	-.175	.052	-.267	-3.343	.001
Interference	-.015	.047	-.028	-.329	.743
punishment	-.032	.053	-.054	-.600	.550
director	-.025	.049	-.038	-.507	.613
Excess expectation	.206	.053	.324	3.879	.000
Inconsistency	-.031	.064	-.040	-.486	.627

a. dependent: expression language, R-square=.120

Table 7은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언어 이해는 성취압력에 $B = -.095$, $p = .044$, 과잉기대는 $B = .130$, $p = .007$ 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language understanding

model	u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		
constant	1.162	.207		5.612	.000
Supportive expression	-.005	.048	-.010	-.112	.911
reasonable explanation	.027	.047	.053	.566	.572
Achievement pressure	-.095	.047	-.165	-2.030	.044
Interference	-.058	.042	-.121	-1.405	.162
punishment	.076	.047	.146	1.601	.111
director	-.044	.044	-.077	-1.009	.314
Excess expectation	.130	.047	.233	2.740	.007
Inconsistency	-.056	.057	-.082	-.967	.335

a. dependent: language understanding, R-square=.090

Table 8은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글자의 회귀분석결과 글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5%로 나타났다.

Table 8.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haracter

model	u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		
constant	1.644	.386		4.264	.000
Supportive expression	-.054	.090	-.056	-.596	.552
reasonable explanation	-.148	.087	-.162	-1.695	.092
Achievement pressure	.016	.087	.015	.181	.857
Interference	-.018	.077	-.020	-.230	.818
punishment	-.101	.088	-.106	-1.141	.256
director	.042	.082	.040	.518	.605
Excess expectation	.133	.088	.130	1.507	.134
Inconsistency	.040	.107	.032	.374	.709

a. dependent: character, R-square=.065

Table 9는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숫자의 회귀분석결과 숫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7%로 나타났다.

Table 9.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number

model	u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		
constant	1.250	.295		4.243	.000
Supportive expression	-.042	.069	-.056	-.606	.546
reasonable explanation	-.088	.067	-.125	-1.316	.190

Achievement pressure	-.018	.067	-.023	-.278	.782
Interference	-.116	.059	-.169	-1.960	.052
punishment	.084	.068	.114	1.245	.215
director	.026	.062	.032	.423	.673
Excess expectation	.093	.068	.117	1.370	.172
Inconsistency	.042	.082	.043	.510	.610

a. dependent: number, R-square=.077

Table 10은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전체발달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성취압력은 B=-.120, p=.009, 감독은 B=-.100, p=.019, 과잉기대는 B=.180, p=.000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7%로 나타났다.

Table 10.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overall development

model	u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		
constant	1.457	.200		7.286	.000
Supportive expression	-.019	.047	-.036	-.403	.688
reasonable explanation	-.037	.045	-.073	-.809	.419
Achievement pressure	-.120	.045	-.207	-2.645	.009
Interference	-.038	.040	-.078	-.945	.346
punishment	-.015	.046	-.028	-.321	.748
director	-.100	.042	-.172	-2.361	.019
Excess expectation	.180	.046	.321	3.928	.000
Inconsistency	-.016	.055	-.023	-.283	.777

a. dependent: overall development, R-square=.157

4.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살펴 보고 아동발달과 관련된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전반적인 아동발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얻은 결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사회성은 부모의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밀관성 등 8가지 요인 중 과잉기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성의 관계에서는 통제적-거부적 양육태도, 간섭, 과잉기대, 성취압력 및 비밀관성이 아동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Jang & Lee[20]은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인정으로 합당한 통제를 할 때, 아이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사람들간의 우호관계를 촉진시키거나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과잉기대가 사회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성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자조행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성취압력과 과잉기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 부모의 성취의 지나친 독려와 과잉 기대가 아동의 자조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근육 운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었으나 소근육 운동에는 감독, 과잉기대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Emck et al[21]은 아동의 신체 활동은 학업 수행(예: 작문), 자기 인식 능력(학업 및 운동)에 필요한 총체적 및 정밀한 운동 기술 개발을 향상시키고 사회 정서적 조정 및 자존심을 높이는 데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하였으며, Bailey[22], Hansen[23]은 그룹과 게임에서의 신체 활동은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우정을 키우며 사회적 혜택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소근육 운동과 관련하여 감독, 과잉기대가 높게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감독과 과잉기대가 적절하게 작용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아동발달과 관련된 양육지식이 요구된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아동발달의 하위 요인인 표현 언어, 언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취압력, 과잉기대로 나타났다. 지나친 성취압력과 과잉기대는 아동에게 학습과 관련한 능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Hyun[2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가 학대, 애정, 과잉간섭일수록 자녀들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비밀관성일수록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시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ohn et al[25] 역시 부모양육태도가 과잉간섭일수록 비행행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Son[26]은 부모양육태도에서 감독 및 비밀관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동은 오히려 긍정적 행동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취압력, 과잉기대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긍정적 효과 역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양육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전달이 부모에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전체발달과 관련해 성취압력, 감독, 과잉기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각 아동 발달과 관련된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전체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아동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지식과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Kim & Kim[27]의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후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감독수준과, 애정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적응 수준은 높아지고 반면, 부모의 비밀관성 및 과잉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적응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양육태도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양육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28], 결국 아동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29]. 또한,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지식의 부족은 비현실적인 발전적 기대에도 작용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양육자는 기대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30], 양육자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3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다[32]. 발달 과학, 소아과 및 관련 분야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아동의 발달은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진보되고 보다 더 다양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발달 할 수밖에 없다[33].

따라서 부모가 아동양육과 발달에 대한 높은 지식과 지각을 갖아야 하고 이는 아동의 성장과 함께 긍정적 상호 작용으로 지속되어야 아동발달에 효과적인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살펴 보고 아동발달과 관련된 주요변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아동발달센터 및 아동관련 복지기관에 방문한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183부의 설문지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기술 통계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조행동에 있어 성취압력, 과잉기대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소근육운동에서는 감독, 과잉기대가 나타났다. 표현언어, 언어이해에서는 성취압력, 과잉기대가 주요 변수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발달에 있어 성취압력, 감독, 과잉기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발달과 관련해 과잉기대,

성취압력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REFERENCES

[1] J. E. Grusec, J. J. Goodnow & L. Kuczynski. (2000). New directions in analyses of parenting contributions to children's acquisition of values. *Child Development*, 71(1), 205-211.

[2] G. W. Ladd & G. S. Pettit. (2002).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69-309). Mahwah, NJ: Erlbaum.

[3] M. B. Mann, P. T. Pearl & P. D. Behle. (2004). Effects of Parent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s. *Adolescence*, 39(154), 355-360.

[4] H. Yavuzer. (1999). Ana-baba ve çocuk (12. Bask). Istanbul: Remzi Kitabevi.

[5] R. H. Bradley & R. F. Corwvn. (2005). Caring for Children Around the World: A view of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6), 468-478.

[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2008). *Disseminating Evidence-Based Practic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Parent Information*. CDC [Online]. <http://www.cdc.gov/parents/index.html> [February 2016].

[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Preventing Viole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Safe, Stable, and Nurtur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Caregivers*.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9] H. M. Belcher, K. Watkins, E. Johnson & N. Ialongo. (2007). Early Head Start: Factors associated with caregiver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NHSA Dialog: A Research-to-Practice, Journal for the Early Intervention Field*, 10(1), 6-19.

[10] J. A. Mercy & J. Saul. (2009). Creating a healthier future through early interventions for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01(21), 2262-2264.

[11] M. Semrud-Clikeman (2007).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12] Institute of Medicine and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5). *Transforming the Workforce for Children Birth through Age 8: A Unifying Foundation*. L. Allen and B.B. Kelly (Eds.). *Committee on the Science of Children Birth to Age 8: Deepening and Broadening the Foundation for Success. Board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13] J. A. Durlak, R. P. Weissberg, A. B. Dymnicki, R. D. Taylor & K. B. Schellinger.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14] M. J. Elias. (2006). The connection between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learning. In M.J. Elias and H.A. Arnold (Eds.), *The Educator's Guide to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pp. 4-14). Thousands Oak, CA: Corwin Press.

[15] J. Fantuzzo, R. Bulotsky-Shearer, P. A. McDermott & C. McWayne. (2007). Investigation of dimensions of social-emotional classroom behavior and school readiness for low-income urban pre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36(1), 44-62.

[16] H. Ireton. (1992). *Child Development Inventory Manual*. Behavior Science Systems.

[17] K. H. Chang. (2018). *The influence of picture-book reading & cooking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development in institutional care cent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gshin University.

[18] H. C. Lim. (2009). *Parenting Attitude Test*. Mindpress.

[19] S. Y. Ki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ity :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20] Y. A. Jang & Y. J. Lee. (2009). A Study of prosocial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and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involvement of mother and father,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18(3), 619-629.

[21] C. Emck, R. Bosscher, P. Beek, and T. Doreleijers. (2009). Gross motor performance and self-perceived motor competence in children with emotional, behavioural,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a review.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51(7), 501-517.

[22] R. Bailey. (2005).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social inclusion. *Educational Review*, 57(1), 71-90.

[23] D. M. Hansen, R. W. Larson, and J. B. Dworkin. (2003). What adolescents learn in organized youth activities: a survey of self-reported developmental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25-55.

[24] T. K. Hyun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Environment on their Delinquent behavior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edia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271-283.

- [25] S. H. Sohn, K. S. Noh, M. Y. Huh, H.O. Jung, S. H. Lee & S. J. Kim. (2001). A study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iation*, 40(4), 605-615.
- [26] J. H. Son & E. Y. Son.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 computer overuse, and internet related delinquency. *Studies on Korean Youth*, 18(1), 135-162.
- [27] J. H. Kim & E. H. Kim. (2017).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Attitude types and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3), 353-363.
- [28] C. R. Hess, D. M. Teti & B. Hussey-Gardner. (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of high-risk infants: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23-437.
- [29] A. S. Ragozin, R. B. Basham, K. A. Crnic, M. T. Greenberg & N. M. Robinson. (1982). Effects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627-634.
- [30] K. Crnic & C. Low.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Handbook of parenting, 5Practical Parenting 2nd ed(242)*, 243-267.
- [31] D. M. Teti & D. M. Gelfand.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32] V. French. (2002). History of parenting: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Handbook of parenting*, 2, 345-376.
- [33] M. H. Bornstein. (2006).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893-949.

백 순 기(Soon-Gl Baek)

[정회원]



- 1987년 2월 : 청주대학교 체육학사
- 199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체육학 석사
- 2004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 박사
- 2013년 ~ 현재 : 중원대학교 의료뷰티케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 스포츠재활
- E-Mail : bsg@jwu.ac.kr

김 도 진(Do-Jin Kim)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재활스포츠과 교수
- 관심분야 : 운동재활, 생리측정, 건강통계
- E-Mail : taehab@hanmail.net